

뉴스 라운드업

-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마감, 7월 미국 생산자물가 포함에 9월 추가 인상 확률 30%대로 후퇴, 국제금리 동반 하락(10년물 4.649%, -3.9bp)
- 이란·미국,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두고 정면 충돌 — 이란은 해협을 자국 통제 하로 선언, 미국 국방장관은 대이란 해상봉쇄 무기한 유지 가능 시사
- WTI -2.43%·금 -1.31% 동반 하락, 호르무즈 긴장에도 재고 증가·수요둔화 우려가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 상쇄
- ECB 설문, 9월 마지막 한 차례 인상 후 긴축 종료 전망(2011년 이후 최단 사이클) — 영국은 예상 상회한 성장지표에 BOE 내 추가 인상론 부각

생산자물가 진정에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뚫지만 호르무즈 긴장은 유가·금값 동반 하락 속에 그대로 남았다

전일 발표된 7월 미국 생산자물가(PPI)가 전월 대비 포함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뉴욕증시는 반도체·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해 S&P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국제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10년물 금리가 4.649%(-3.9bp), 2년물이 4.149%(-5.2bp)까지 내려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장단기 스프레드를 만들었고, 연방기금선물에 반영된 9월 인상 확률도 4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 내부는 7월 성명에서 9-3으로 표가 갈릴 만큼 매파 진영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이고, 10월·12월 회의로 갈수록 시장이 반영하는 인상 확률은 오히려 58%, 77%로 높아져 있어 이번 지표 하나로 긴축 경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최근 하우스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지정학 쪽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한층 첨예해졌다. 이란은 해협이 자국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필요하면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양측의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25달러로 2.43% 내렸는데, 이는 재고 증가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이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을 압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값도 1.31% 밀려 4,349.92달러를 기록했다. 상품가격 약세는 남미 증시에도 번져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주식이 2012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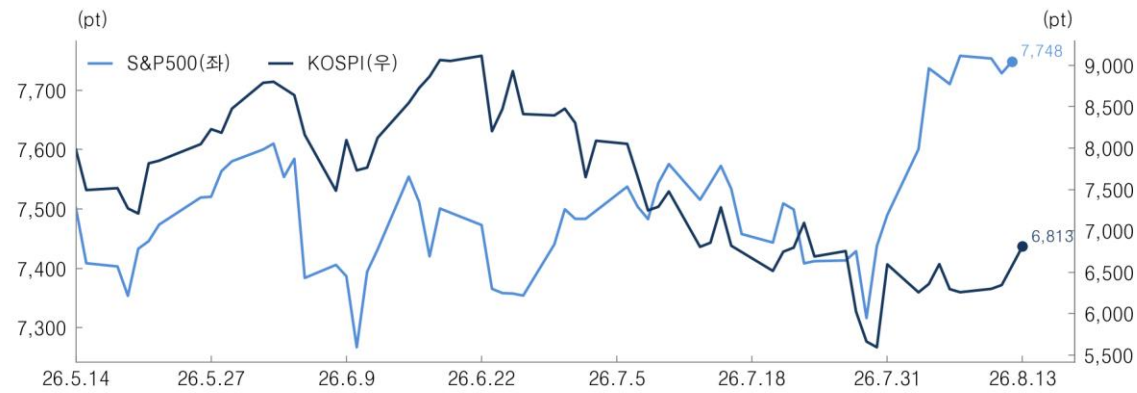
유럽에서는 로이터 설문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 달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 뒤 긴축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현될 경우 2011년 이후 가장 짧은 긴축 국면이 된다. 영국에서는 영란은행(BOE)수석 이코노미스트 필이 예상을 웃돈 6월 성장을 지표를 근거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런던 증시(FTSE100)는 광산업체 안토파가스타의 구리 생산 전망 하향으로 2주 만에 최저치까지 밀려 개별 종목 이슈가 지수를 눌렀다. 한편 코스피(+3.56%)·닛케이(+1.16%) 등 아시아 증시는 전일 낮 세션에서 이미 크게 오른 채 마감한 수치로, 밤사이 나온 미국 물가지표와 호르무즈 관련 뉴스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 오늘 개장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98.99	+0.65%	8/13 종가
	나스닥	26,803.01	+0.81%	8/13 종가
	STOXX 600	659.25	-0.04%	8/13 종가
	닛케이 225	68,308.37	+1.16%	8/13 종가
	CSI 300	4,663.95	-0.57%	8/13 종가
	KOSPI	6,813.34	+3.56%	8/13 종가
	항생	25,396.51	-0.17%	8/13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97	-0.01%	8/13 종가
	달러/엔	159.46	-0.01%	8/14 종가
	유로/달러	1.15	-0.02%	8/14 종가
	달러/원	1,418.23	+0.07%	8/13 종가
	달러/위안	6.74	-0.01%	8/13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49%	-3.9bp	8/13 종가
	미국 2 년	4.149%	-5.2bp	8/13 종가
	일본 10 년	2.866%	+2.1bp	8/13 종가
	독일 10 년	3.134%	-3.4bp	8/13 종가
	한국 10 년	4.293%	+0.2bp	8/13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1bp	-1.0bp	8/12 종가
원자재	WTI	81.25	-2.43%	8/13 종가
	금	4,349.92	-1.31%	8/13 종가
	구리	6.61	-0.11%	8/13 종가
변동성	VIX	14.64	+0.69%	8/13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미국 뉴스 37 건 HIGH	•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0% 기록 → 9월 연준 인상 확률 31-35% 급락 ↳ 생산자물가지수(PPI) 월 0% (6월 -0.1%), 전년 +4.7% 기록 — 소비자물가(CPI) 약세에 이어 인플레이션 둔화 이중확인 ↳ 연준 9월 정책회의 인상 확률 31-35%(전일 40%) 급락 — 시장 기대 큰 폭 변화 • S&P 500 사상 최고가 기록, 기술주·반도체 주도 ↳ S&P 500 +0.65-0.73% 사상 최고가 기록, Nasdaq +0.81-0.92%, Dow +0.13-0.36% —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촉발 ↳ Sandisk +13.7%, Micron +4.2%, Broadcom·Meta 등이 주도 — 고 PER 성장주 매수 이동 • 미국 국채 상승, 수익률곡선 5월 이후 가장 가파름 ↳ 10년물 수익률 ~4.64%, 2/10년물 수익률곡선 스프레드 최대 확대(5월 이후) — 금리 인상 지연 시나리오 → 장기채 수요 이동 ↳ 30년물 채권 경매 결과 시장 관심 부진 • 달러지수 99.88~99.96, 주간 +0.4% 반등 ↳ 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도 구조적 지지로 이번 주 소폭 반등(3주 연속 약세 후), 8월 저유동성 구간에서 변동성 제한 ↳ 유로 상승 +0.1% → \$1.1536 •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 이란·미국 발언 정면 충돌 ↳ 이란 Basij(준군사조직) 수장 Taeb '해협은 이란 통제와 관리' 발표(8월 13일) vs Trump '미국 중동제' 선언(전일) — 협상 경색 심화 신호 ↳ 6월 휴전 후 협상 진전 없는 상태 지속, 글로벌 석유·LNG 해운 5분의 1 통과 경로로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 재점화 • 미 국방부 '이란 해상 봉쇄 무기한 유지 가능' 발표 ↳ Pete Hegseth 국방부장관 '함정 로테이션으로 해상 봉쇄 무한정 지속 가능' 발표 — 경제 압박 수단 장기화 의지 확인 ↳ 2월 분쟁 개시 후 협상 진전 없는 가운데 군사적 압박 지속 • USMCA 개정 기한 8월 19일 임박, 미국·캐나다 협상 가속 ↳ 캐나다 정부 관계자 '미국도 기한 내 타결에 적극적' 발표 — 양국 모두 시간 제약 속 협상 가속 진행 ↳ 미 자동차 제조사들 '개정안 채용 시 연간 수십억달러 비용 부담' 강력 반발 — 부품 관세 누적 부담 지속 • 노동시장 견고성 확인, 투자자 심리는 약화 신호 ↳ 신규 실업수당 209,000명(+9,000), 계속 177.7만명(-22,000) — 노동시장 안정 지속 ↳ AAI 개인투자자 설문에서 '관망(중립)' 비중 증가 — 금리 인상 약화에도 시장 불확실성 존재
유럽 뉴스 13 건 HIGH	• 유럽중앙은행(ECB) 9월 최종 인상, 이후 2027년 중반까지 정책 동결 예상 ↳ 고유가로 인플레이 2% 목표에서 지속 이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 2011년 이후 가장 짧은 긴축 기간으로 확정될 전망

권역	요약
	• 영국 2 분기 국내총생산(GDP) +0.4%, AI 붐 수혜로 금리 인상 근거 강화 ↳ 정보통신 부문이 성장의 절반을 차지, AI 컴퓨터 하드웨어 투자 급증이 주도 ↳ 6 월 월별 GDP +0.3%(5 월 보합 이후 반등), G7 내 최고 성장 경로 유지 ↳ 영란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 Pill 의 인상 근거 강화 발언, 경제 급격한 둔화 우려 해소가 배경(7 월 정책금리 결정 시 6:3 소수의견) • 유로존 채권 수익률 2~2.6bp 내림, 유가 하락·미국 물가 완화 영향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13~3.15% 범위 내 움직임 ↳ 유가(-2%) 및 미국 생산자물가(PPI) 약세로 단기 채권상환 비용 개선 ↳ 연준 9 월 인상 기대 약화, ECB 9 월 인상에 대한 시장·이코노미스트 기대는 유지 • FTSE 100 지수 0.6% 하락하며 2 주 신저점 기록, 광업 약세로 촉발 ↳ 4 일 연속 하락 후 10,772.67 포인트 종가 ↳ Antofagasta 2026 년 구리 생산 전망 하향으로 광업 부문 매도 압력 확대 • 유럽 블루칩 2 분기 실적 성장률 23.4%로 8 주 연속 상향 조정 ↳ STOXX 600 구성종목 268 개 기업 기준 기대이익 증가율 ↳ 에너지·자재 부문 수익성 급증으로 다른 부문 약세 상쇄, 수년 만의 강한 실적 시즌 형성 • EU 태양광 인버터 규제(5 월), 유럽 업체로 수요 전환 ↳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 '고위험국' 제품 제외, 전력망 교란 우려 이유 ↳ EU 자금 지원 대형 사업(전체 약 20%) 영향 범위
EM 기타 뉴스 8 건 HIGH	• 이란-미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 대립 ↳ 이란 바스즈(준군사 조직) 지도자 호세인 태입, 어제 '해협이 이란의 통제·관리 하에 있다'고 공식 선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통제 중'이라고 주장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해운량의 약 1/5 를 중개하는 전략적 수로 • 푸틴 대통령,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는 쿠릴 도서 방문 ↳ 방문한 섬은 러시아명 이투루프·일본명 에토후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쿠릴 4 개 도서 중 하나 ↳ 일본 정부가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 ↳ 러시아 해군 훈련·북한 미사일 발사 등 선행된 군사활동 속에서 단행 •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흑해 민간 목표 공격 중단을 제안 ↳ 제 3 국 중재로 양국의 흑해 민간 목표 공격 중단을 제안 — 러시아는 아직 공식 입장 제시 없음 ↳ 흑해 공격 급증에 따른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곡물·에너지 수출 흐름 차질 ↳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식량 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수출 차질은 국제 식량 안보에 영향 • 예멘, 2022 년 휴전 이후 최고 수준의 전면전 위험 직면 ↳ UN 특사 한스 그룬드베르그, 예멘의 대규모 전쟁 재개 위험을 2022 년 휴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예멘 인구 절반 이상이 극심한 식량난 겪는 상황 ↳ 친이란 후티 반군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부 간 무장충돌 급격히 격화

권역	요약
	• 터키-파키스탄-사우디, 국방협력 협정 체결 ↳ 지난주 체결된 국방협력 협정의 세부 이행체계 공개 — 정치·군사 협력체계 구축, 합동훈련·국방산업 협력 포함 ↳ 세 나라는 모두 수니파(Sunni) 이슬람 국가이면서 미국의 지역 동맹국 ↳ 지역 분쟁 및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방위력 강화 움직임 • 우간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9.75% 동결 ↳ 정책금리 9.75% 현 수준 유지(8 회 연속 동결) ↳ 7 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4.0% (전월 3.7%), 상승하나 중앙은행은 '광범위 물가압력 신호 미흡'으로 판단 ↳ 유가 상승이 최종 소비자 물가에 광범위 파급되지 않은 상황 평가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3 건	• 글로벌 주식 강세, 연준 금리 현 수준 유지 기대감 확산 ↳ 미국 7 월 생산자물가 무변화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기대 축소(9 월 현 수준 유지 확률 65%), 기술주 주도로 S&P 500 장중 신고가 경신 ↳ 유가 배럴당 \$87.30 로 2% 하락, 높은 글로벌 재고 수준과 수요 둔화 신호가 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 • 이스라엘, 레바논 철군을 헤즈볼라 무장해제 조건으로 제시 ↳ 국방장관의 영구주둔 암시 입장에 미국이 비판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조건부 철군 입장으로 수정(헤즈볼라 무장해제 필수) ↳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철수 이전의 무장해제 협상을 거부한 상태로, 교착 심화 전망 ↳ 국방부가 군에 '장기주둔' 준비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철수 불투명성 시사
인도 뉴스 5 건	• 인도 정부채 수익률 하락, 미국 국채 동반·유가 약세 수혜 ↳ 벤치마크 6.94% 2036 년물 수익률이 2 기본포인트(2bp) 내려 6.7582%로 마감 ↳ 브렌트유 배럴당 \$87.20 으로 2%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인플레이션 압력 일부 완화 ↳ 루피화 0.1% 약세로 95.44/달러 마감, 중앙은행 개입으로 변동성 4.2%까지 진정, 5 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 • 인도, 광업 세제 규제·투자상품 접근 기준 동시 개선 ↳ 광업 관련 신규세·부과금을 연방정부 승인 조건 하에서만 부과 가능하도록 제한, 주(州) 간 불균등 조세부담 완화 목표 ↳ 증권거래위원회(SEBI), 해외투자자의 적격투자자 기준 완화안 공시, 대체투자펀드·포트폴리오매니저·전문투자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접근성 확대 • 타타 모터스 여객차량, 1 분기 순이익 77.5 억 루피로 80.3% 급락 ↳ 럭셔리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JLR)의 공급망 제약과 원자재비 상승이 주요 악화 요인 ↳ JLR 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해, 한 곳의 부진이 전체 수익성에 직결
브라질 뉴스 4 건	• 라틴아메리카 주식지수 7 개월래 저점 진입, 상품가격 약세 속 2012 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세 ↳ MSCI LatAm 지수 0.43% 하락하며 10 거래일 연속 하락, 유가·원자재 약세가 주 요인 ↳ 투자자 자금이 인공지능·기술주 중심의 신흥시장 부문으로 이동, 역대 통화 달러 대비 0.2% 약세

권역	요약
	↳ 페루 중앙은행 금리 결정 임박, 무디스의 페루 경제성장을 전망 상향 • 브라질 6 월 소매판매 예상 상회, 고금리 속에서도 반등 ↳ 6 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5% 증가(예상 0.3%), 전년 대비 2.9% 증가(예상 2.35%) ↳ 5 월 약세에서 반등, 8 개 부문 중 4 개 부문이 증가 ↳ 중앙은행 기준금리 25bp 인하
남미 기타 뉴스 8 건	• 아르헨티나 7 월 월간 인플레이션 2.1%, 연간 누적 33.8% ↳ 월간 2.1% (6 월 1.9%, 예상 2.0%) ↳ 12 개월 누적 33.8% (전월 33.5%) ↳ 휴가·여행비 상승이 상승률 견인 • 아르헨티나, 은행의 기업 달러 대출 규제 완화로 신용 공급 확대 ↳ 은행이 달러 예금의 최대 15%까지 기업에 달러 대출 허용 (경제부장관 Caputo 발표) ↳ 기업 신용 확대 및 달러화 유동성 부족 대응 의도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Georgieva 의 지난달 밀레이 경제개혁 평가가 배경 • 페루 중앙은행, 현 단계에서 금리 인상 필요 없다고 판단 ↳ 기준금리 4.25% 유지 입장 (금리정책 수석 Montoro); 주변국 대비 낮지만 중앙은행 신뢰도와 적시 정책 대응으로 물가 통제 가능 ↳ 7 월 월간 소비자물가 0.29% (6 월 0.23%), 내년·2028 년 기대 인플레 1~3% 목표 범위 내 고정 ↳ 무디스, 2026 년 경제성장 전망 상향 신호
프론티어 뉴스 1 건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할인창구 접근 제한 완화 및 공개시장운영 범위 확대 ↳ 지난 12 일 공시로 외환시장·정부채 경매와 연계된 상설대출제도(SLF) 접근 제한 즉시 철폐, 당일 거래 한도는 유지 ↳ 만기 레포 운영 재개 및 공개시장운영 참가 은행 범위 확대로 통화정책 파급 경로 개선 목표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